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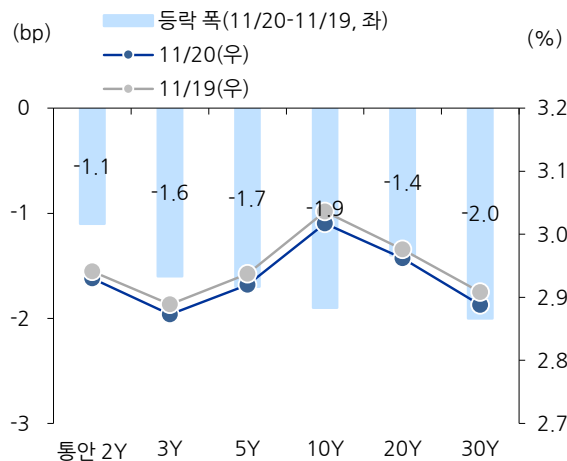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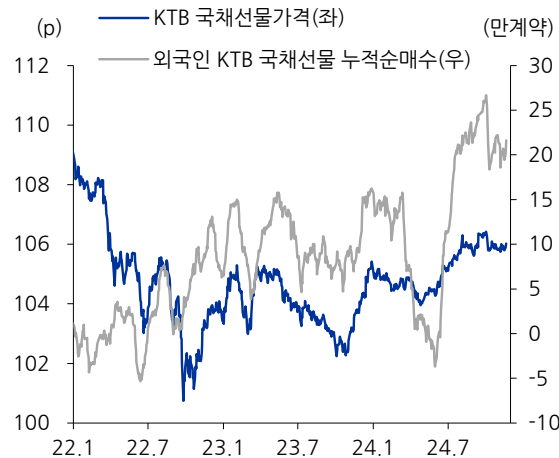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11/2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873%	-1.6	-6.6	-28.1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17%	-1.9	-5.0	-16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4.4	14.7	12.8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02	5.0	20.0	6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00	21.0	49.0	15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18%	3.5	3.1	6.8
	미국채 10년물	4.412%	1.5	-4.0	53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9.4	11.5	16.5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350%	1.3	-3.9	34.6
	호주국채 10년물	4.560%	-0.5	-10.8	60.6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전일 라우 확전 우려로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한 미국 채 금리에 연동, 강세 출발. 개장 전 발표된 국내 PPI, 3개월 연속 둔화세 보이며 금리 하락 뒷받침
- IMF, 국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및 점진적 인하 시나리오 제시한 점도 우호적으로 적용. 아시아 장 미 금리 반등, 레벨 부담으로 강세폭은 제한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연준인사 발언 소화
- 근래 잇따라 이어지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으로 금리 반등. 미국채 20년물 입찰 수요도 부진하여 약세 압력을 가중시켰음
- 보먼 이사, 인플레이 2%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우려 표출. 국 이사, 추가 인하 시기는 향후 데이터에 달려있으며 12월 인하는 불확실함을 언급
- 금일 미 10월 LEI 및 기준주택매매, 미 11월 캔자스시 제조업 활동, 유로존 11월 소비자대지수 등 발표 예정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1/20일	1D	1W	YTD
원/달러	1,390.90	0.0%	-1.1%	8.0%
달러지수	106.69	0.5%	0.2%	5.3%
달러/유로	1.054	-0.5%	-0.2%	-4.6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5	0.2%	0.1%	1.8%
엔/달러	155.50	0.5%	-0.1%	10.4%
달러/파운드	1.265	-0.3%	-0.5%	-0.6%
헤알/달러	5.77	0.0%	-0.7%	19.0%
상품 WTI 근월물(\$)	68.87	-0.7%	0.6%	-3.9%
금 현물(\$)	2,648.96	0.6%	2.9%	28.4%
구리 3개월물(\$)	9,082.00	-0.1%	0.4%	6.1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과 같은 1,390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00.90원에 마감.
- 간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등 지정학적 우려 확대에도 달러 강세는 제한. 달러-원도 보합권에서 출발.
- 장 초반 이후 달러-원은 1,394원 선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으나,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반락. 그러나 1,380원대 후반까지 하락한 오후에도 하방이 제한되면서 다시 1,390원 선으로 반등.
- 이날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있었지만 관련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지정학적 불안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소화하며 상승.
-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킴스 발사에 이어 전일에는 영국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,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우려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불안 고조. 그러나 푸틴이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강세는 제한.
- 연준 인사들은 일제히 매파적 발언을 이어감. 보먼 연준 이사는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 생각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발언. 쿡 이사도 금리를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옮겨야 하나,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. 12월 인하 확률은 50% 수준까지 하락.